中, 포탈라궁 장서 보존에 거액 투자

10년간 500억 원 규모… 복원 · 전시 등도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라마의 겨울 궁전인 포탈라궁에 수장된 불교문헌들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됐다. 지난달 25일 중국의 '신화통신' 은 중국정부가 포탈라궁의 장서 보존을 위해 향후 10년간 3억 위안(한화 약 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포탈라궁은 7세기경 티베트의 왕 송짼감뽀(Songtsen Gampo)가 라싸의 중심부에 있는 마르뽀리(Marpo ri)산에 처음 세워져, 17세기에 5대 달라이라마가 증축했다. 이후 달라이라마의 겨울궁전이자 사원으로 티베트 불교의 중심이 됐다. 1994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이번 보존계획은 중국 국가문물관리국의 관리 하에 장서들의 훼손예방, 복원, 디지털 보존, 전시 등 다방면으로 진행된다. 포탈라궁에는 주로 불교문헌을 중심으로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한문, 만주어, 몽골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약 4만여 권의 고대문헌들이 소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국 측은 "이 계획은 문화다양성을 유지하고, 후대에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며 지난 2018년 11월부터 계획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티베트 자치구 문화유산국은 관련학자들과 연구원들을 조직해 고대문헌 보호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 중국정부는 국가프로젝트의 하나로 포탈라궁 장서 보존계획을 승인했다.

관리국은 "장서들은 크게 불교문헌, 의학, 역사, 문학 등으로 분류된다. 현재

2018년 11월부터 계획 시작
고대문헌 4만 권 전수조사
2800권 디지털 등록 작업도
국가 프로젝트로 보존 추진

대략적인 분류와 장서고의 규모에 대한 사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전 조사의 첫 단계는 오는 3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이다.

포탈라궁의 장서 가운데는 12세기에 파괴된 인도의 날란다 사원의 필사본이 일부 전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13대 달라이라마가 전 러시아 황실에 선물한 불교문헌들 가운데엔 산스크리트어로 필사된 〈유가사지론〉 패엽경의 일부가 러시아 도서관에서 발견된 적 있어 화제가 됐다.


포탈라궁에 보관된 대장경을 살펴보는 스님. 사진출처=신화통신

그러나 지금까지 포탈라궁 장서의 전체 규모가 조사된 적은 없었다. 또한 문화대혁명 당시 많은 문헌들이 훼손되거나 유실됐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분류됐던 목록들에서 이탈된 문헌들이나, 완본으로 전하지 못하는 서적까지 포함하면 전체 장서는 4만여 권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획에 참여한 티베트 고대문헌 전문가인 페르돈 박사는 "이러한 희귀 고문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과 이것들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귀한 기회"라며 이번 계획에 대해 기대감을 밝혔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 2,800권의 고대문헌들은 훼손예방을 위한 보호조치와 복원을 마친 후 디지털 등록이 실시된다. 문헌과 함께 관련된 불상과 회화, 공예품 등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디지털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지 학계에서는 이 작업을 통해 그동안 흩어진 채로 보존되던 고대 불교문헌들이 완벽한 모습으로 복원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에 생활불교 뿌리 내리길"

스리랑카 반트 스님, 초원마을서 명상수업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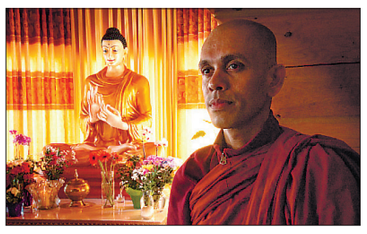
캐나다의 한 대초원 마을에서 '생활불교' 를 가르치는 스리랑카 승려가 화제다.

반트(Bhante) 스님은 서스캐처원주(州)의 새스커툰 근교 코먼파크에서 명상 · 카르마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3월 5일 CTV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반트 스님은 2년 전 미국 스톤브리지의 부처명상센터(Buddha Meditation Centre)에서 불교 교육을 시작, 이후 현재의 코먼파크로 옮겨 서양인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고 있다. 주말에는 한국의 템플스테이와 같은 명상 수련회를 열고 마음챙김명상을 진행한다. 서스캐처원대학교에서 매주 명상 수업도 연다.

반트 스님은 "캐나다에 오기 전에는 불교의 이런 면을 깨닫지 못했다"며 "스리랑카에서는 사람들이 불교를 믿도록 돕고 '카르마(業)' '윤회' 와 같은 것들을 가르친다. 하지만 새스커툰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스리랑카에서는 '종교' 로서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쳤지만, 캐나다에서는 일종의 '정신적 치료 방법' 의 일환으로 불교를 전파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트 스님은 "사람들은 내가 가르치는 명상으로 마음 속 불안을 해소한다. 나는 불교의 이런 면을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사람들은 단지 나와 함께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처님 가르침의 효과"라고 웃어보였다.


캐나다 초원마을에서 생활불교를 가르치는 반트 스님. 사진출처=CTV뉴스

이어 반트 스님은 "스리랑카에서는 1000여 명의 스님들과 불교 교육을 연구했다. 내 은사는 우리가 그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파하길 원했다"며 "그의 놀라운 생각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트 스님은 '불교 공동체' 는 작지만 '명상 공동체' 는 거대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서양에서 스리랑카 출신의 공동체는 매우 적다. 금전적으로도 부족하다"며 "하지만 서양인들이 겪는 육체적 · 정신적 문제를 해소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내면은 삶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고통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더 많은 휴식 필요"

올해 84세로 피로감 호소
최근 들어 해외방문 지양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직접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망명 티베트 언론 '파율' 과 티베트망명정부는 달라이라마의 발표를 대서특필했다.

달라이라마는 2월 27일, 인도 다람살라에 소재한 남갤사원서 봉행된 장수기원 기도법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장수기원 기도법회는 티베트망명정부 교육부를 비롯한 4개 단체의 공동주최로 달라이라마의 장수를 기원하며 봉행됐고, 전 망명정부 총리 삼동 린포체가 법주로 진행했다.

달라이라마는 법회를 마친 후 진행된 연설에서 "주최 측과 티베트인들은 일반적으로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깊은 헌신을 바쳐왔다. 사제 간의 깊은 영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이 기도가 분명히 성취되리라고 확신한다"며 법회에 참석한 모든 신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장수기원법회를 주최한 단체의 대표들이 달라이라마에게 만달라 공양을 올리고 있다.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이어서 달라이라마는 "역대 달라이라마들 가운데 가장 장수했던 1대 달라이라마께선 84세에 입적하셨다. 올해 내 나이가 그와 같다. 앞으로 내가 더 장수하길 바란다면, 또 건강하게 지내며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해선 더 많은 휴식을 취하며 공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지난여름 라닥 지방을 방문한 자리에서 발표한 자신의 건강과 장수에 관한 성명서를 반복하며 "달라이라마 제도는 티베트인들의 필요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현재 내 건강에 자신이 있고,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진다. 하지만 최근 피로를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파율' 은 달라이라마가 티베트의 정체성과 동일시돼 왔기에 달라이라마의 건강은 지난 10년간 큰 논쟁거리였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강화되는 중국의 티베트불교 탄압의 배경에는 차기 달라이라마의 선출에 중국정부가 개입하기 위한 포석 아니겠냐는 추측이 망명 티베트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달라이라마는 건강문제를 사유로 직접적인 해외방문을 자양하고 있으며, 화상회의나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해외의 신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실제 2017년에는 일본방문을 한 해 연기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베트남의 불교신자들을 위해 화상회의로 대화를 진행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고야산大, 불교 살리기 위한 '분투'

신입생 늘리려 SNS 강화 · 실용 교육 시스템 도입

일본 오사카 남부의 와카야마현 내 한 사립 불교대학이 급감하는 신입생 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과 과정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부디스트도어(buddhistdoor)가 3월 5일 보도했다.

고야산대학은 세계문화유산이자 일본 진언종의 총본산인 고야산 정상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 고야산대학은 진언종의 창시자인 일본 헤이안시대의 승려 코보 다이시 쿠카이(Kobo Daishi Kukai)가 816년 설립한 불교 대학에서 근원한다. 해당 학교는 현재까지 쿠카이 스님의 교육 원칙을 따르고 있다.

전통성을 표방하던 이곳에서 '엄격한' 교육 기관으로서 이미지를 탈피, 온라인 교육 시스템 및 SNS 포교 도입 등 신입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생성된 해당 대학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는 학생들의 일상 모습을 소개하는 데 주력한다. 학생들의 등교용인 800m 높이의 케이블카, 지도 스님과 함께 장난치는 모습 등 친근한 사진이 공개된다.

또 전공과목에 불교학뿐만 아니라 불교 복지, 심리학, 사회학, 인문학 등을 창설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는 오사카 시내에 위치한 캠퍼스에서 직장인을 위한 특별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부디스트도어는 "고야산 대학은 2020년부터 다른 대학과 연계해 쿠카이의 철학을 기반으로 교육 저변을 넓힐 방침"이라며 "농업 등 실용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지방 당국과 협약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급감하는 신입생 수와 불교 쇠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류닌 인위(Ryunin Inui) 총장은 "1980년만 해도 매해 50명이 넘는 승려가 졸업했지만 최근에는 10명 안팎으로 감소했다"며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천년의 보배
3일만에 깨치는 야포禪



국판 218쪽
석호 지음
12,000원

철저하게 친절한
깨달음으로의 안내
부디 실행하라
그대 탄생의 이유
완전한 존재가 된다.

홀연히 섬으로 간 스님, 뭘 하시나 했더니 법어를 낚고 계셨네요.
- 제자 광목심 장윤정

❋ 이 책은 깨달음의 세계화 · 나눔을 실천하라는 저자 석호스님의 뜻에 따라 5권 묶음으로만 판매합니다.

5권 묶음판매
배부른 소리, 맞습니다.
배 부르니 당신께 내 밥
덜어드릴 수 있어 좋지요.
주는 게 복이니까
깨달음의 선물, 선물하세요.
선물하고 또 선물하면
당신 마음의 키는 쑥 커집니다.
커진 만큼 넉넉해지고
커진 만큼 평온해지므로
배부른 이 권유는
당신을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욕지도에서 석호 물처럼

모든 게 변한다.
할 수 있을 때 하고
줄 수 있을 때 줘라.

❋ 석호스님 법문초청을 원하는 사찰이나 단체는 20일 전에 예약해 주십시오.

5권 정가 : 60,000원 → 공급가 : 54,000원 (배송무료)
주문처 : 도서출판 연 화 ☎ 010-9377-1923
주문송금계좌 : <농협> 703-01-384100 (지차연)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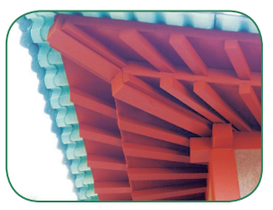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